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의 연구 주제 분석*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opics of the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From 2001 to 2017

김희섭 (Heesop Kim)**

강보라 (Bora Kang)***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선행 연구 | 4.1 빈도 분석 |
| 3. 연구 설계 | 4.2 키워드 네트워크 |
| 3.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5. 결론 |
| 3.2 연구 절차 |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학회지의 창간호(2001년)부터 최근(2017년)까지 발표된 논문 390편을 대상으로 해당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한글 키워드 875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키워드는 NetMiner V.4를 이용하여 이들 연구 주제의 양적측면, 영향력 측면, 그리고 확장성 측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주제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물', '역사기록물', '아키비스트', '국가기록원' 순으로 나타났고,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물', '평가', '지역기록물', '검색시스템'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확장성 측면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아키비스트', '전자기록물',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주제어: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연구 주제,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opics of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which is one of the main academic journals of archival research in Korea. To achieve this objective, a total of 875 author-assigned Korean keywords were collected from the 390 papers published from the first issue (i.e., 2001) to the current issue (i.e., 2017) in the target journal. The collected keywords were analyzed using NetMiner V.4 to discover their frequency,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Results showed that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Electronic Records," "Historical Archives," "Archivists,"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wed the most frequently conducted research topics; wherea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Electronic Records," "Evaluation," "Locality Archives," and "Retrieval System" were the most influencing research topics. On the other han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rchivists," "Electronic Records," "Archive," and "Metadata" showed the most widely intervening research topics in this research.

Keyw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 topics, keyword analysis, network analysis,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M3C1B6071502).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eesop@kn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박사수료(brkang88@daum.net) (교신저자)

■ 접수일: 2018년 10월 30일 ■ 최초심사일: 2018년 10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1월 14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183-204,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4.183>>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이 공포되면서 기록 관리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법률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수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학계 차원에서는 학문정립, 교육과정 개설, 학회 설립 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1999년 관련 분야의 학자, 연구자, 실무자들이 '한국기록학회'를 설립하여, 이듬해인 2000년부터 전문 학술지인 『기록학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2000년에 설립된 '한국기록관리학회'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2001년부터 발간되어 기존의 『기록보존』, 『기록관리보존』과 더불어 학문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정 학술지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며 지식 향상에 공헌하기 위한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연구 성과는 학문의 역사적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 발전에 따른 주제 변화의 행태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학술지나 학문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이하 학회지)는 2001년 창간호부터 2011년 11권 2호까지 반년 주기로 발간되었고, 이후 연3회 발간되다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계간지(2월말, 5월말, 8월말, 11

월말 발행)로 발간되고 있다. 연구자가 투고한 논문은 3명 이상 학회지 심사위원의 평가과정을 거친다. 평가 항목으로는 창의성, 논증의 타당성과 문장의 논리성, 논문 제목과 내용의 명료성, 논문체제의 체계성과 간명성, 학계의 기여도 및 사회의 활용도, 용어와 그림과 도표 사용의 정확성과 통일성, 관련 문헌의 완벽한 서지정보 및 활용도, 주제어(Keywords)의 명시성, 외국어 초록의 정확성 등이며 이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과 논문 저자를 위한 논문투고 규정, 그리고 심사위원을 위한 논문심사 규정의 마련을 통하여 학회지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된 지 17년(2017년 기준)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청년기에 접어든 본 학회지를 단일 학회지로서의 특성과 지적구조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보거나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록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중의 하나인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의 핵심 영역은 무엇이며, 어떤 연구 주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2. 선행 연구

국내에서 학문의 명칭인 기록학은 '기록학' 혹

은 ‘기록관리학’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¹⁾ 이는 문헌정보학과 역사학, 행정학, 인쇄공학, 생화학, 건축공학, 컴퓨터공학 등과 학제적인 성격을 갖는 학문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SAA(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의 기록학 용어사전에서는 기록학(Archival science)을 “기록물에 대한 평가, 수집, 인증, 보존, 그리고 접근제공과 관련된 실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이론(A systematic body of theory that supports the practice of appraising, acquiring, authenticating, preserving, and providing access to recorded materials)”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Pearce-Moses, 2005), 한국기록관리학회(2010)에서는 기록학을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대상으로 그 이론과 실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기록전문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문 명칭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기록학의 전반적인 연구 영역을 포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는 있으나, 특정 학술지의 연구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분석방법으로 키워드분석, 인용 분석 등 서지정보를 활용한 계량 정보 분석방법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우성, 양현채, 2013).

본 장에서는 국내의 관련 선행 연구를 해당 논문의 발표 연도에 따라 나열식으로 정리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연구 주제의 변화를 단순

하게나마 파악하고자 하였다.

Cook(2001)은 당시 포스트모던 추세에 따라 기록학의 연구 초점이 기록물 생산에서 기록물 생산 과정으로 옮겨져 이와 관련된 핵심 이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관련 핵심 이론을 크게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나누었다. 즉, (1) 출처(Provenance), (2) 원질서(Original order), (3) 기록물(Record), (4) фонд(Fonds), (5) 정리와 기술(Arrangement and description), (6) 평가(Appraisal), (7) 보존(Preservation), (8) 기록관(Archives) 등이다.

Couture and Ducharme(2005)는 기록학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가 학문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된 40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구 영역을 크게 9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기록학의 목표와 목적(The object and aim of archival science), (2) 기록과 사회(Archives and society), (3) 기록과 기록학의 역사(The history of archives and of archival science), (4) 기록의 기능(Archival functions), (5) 기록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관리(The management of archival programs and services), (6) 기술(Technology), (7) 미디어와 기록의 유형: 전자 기록(Types of media and archives: Electronic records), (8) 기록의 환경(Archival environments), (9) 기록 관련 특별 이슈(Specific issues related to archives)²⁾이다.

1) 본 논문에서는 두 명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기록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타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원저자가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참고로 Couture의 2001년 논문에서 (7)은 기록물 지원과 유형(Supports and types of archival records) 이었고, (8)은 기록관의 유형(Type of institutions) 이었음.

김희정(2005)은 국내와 미국의 대표 학술지를 선정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간된 기록관리학 분야의 핵심 저자군과 이들 간의 동시인용 빈도를 적용하여 이차원상의 저자지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구자들은 주로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에 치중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자들은 경우 정보기술 중심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주제로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Kim과 Lee(2008)는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Ariadne', 'Archival Science', 'American Archivist', 'Archivaria', 'Archival Issues' 등 6개의 학술지에서 발표된 432개 논문을 문헌 클러스터 기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7가지 주제영역으로 분류하였다: (1) 디지털 도서관과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Digital libraries and digital archiving technologies), (2) 온라인 자원과 검색 도구(Online resources and finding aids), (3) 기록관과 아키비스트(Archives and archivists), (4) 법률과 정치적 이슈(Legal and political issues), (5) 전자 기록과 기술적 이슈(Electronic records and technical issues), (6) 기록과 정보 관리(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7) 전자메일과 정보전문직(E-mail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이들 7가지 주제영역을 다시 3가지 분야로 병합하면, (1)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2) 기록관(Archives), (3) 기록 및 정보 관리(Record/Information Management)로 범주화된다는 것을 밝혔다.

김규환, 남영준(2009)은 국내 기록관리학의 연구 동향을 제시하고자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술지인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

기록관리학회지』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374개의 논문을 수집하여 주제영역의 분포와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있었으며, 학회지마다 특성 있는 주제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로사와 김유승(2009)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관련 5개 학회지(『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중에서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을 조사·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로는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은 총 99건이었으며 해가 갈수록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선호한 주제영역은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공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국내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인 『기록보존』,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1987년부터 2007년까지 게재된 399편의 논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록학 연구의 동향과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주제영역을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법률·제도/정책(27.3%), 보존(18.5%), 전자기록관리(13.8%), 조직화(11.0%), 기록관리(학)일반(8.5%), 기록관론(7.5%), 평가(5.5%), 전문성(4.0%), 서비스(3.5%), 윤리(0.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연구한 김희정(2005)

의 국내 연구자의 연구 추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최재희(2011)는 특정 영역인 기록평가론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관련 주제의 논문 33개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주제로 평가를 다루는 논문의 편수가 줄어들고,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자의 참여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 또는 대안 제시가 감소했다는 점을 도출하며 평가 영역의 활성화와 기반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희정(2011)은 Web of Science에서 '웹 아카이빙'을 주제로 한 288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의학영역 정보기술 및 시스템과 관련된 이미지 아카이빙에 관련된 연구들이 가장 중심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영역에서의 웹 아카이빙 연구는 주로 웹 아카이빙 및 디지털 보존 프로젝트와 웹 아카이빙 틀과 방법론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김관준과 서혜란(2012)은 국내 전자기록 연구 영역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문헌정보학 및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 7종에서 발표한 161편을 대상으로 디스크립터 프로파일링과 저자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지적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볼 때, 기록관리학은 공공 전자 기록물에 초점을, 문헌정보학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한 전자 기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설명하였다.

이소연(2013)은 국내 디지털 아카이브와 보존연구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수록된 관련 연구

논문 115건을 수집하여, '일반연구', '정책연구', '기술연구', 그리고 '유형연구' 등 4가지 주제영역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노현아와 장우권(2013)의 연구는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 과정에서 인용한 타 학문 분야 문헌을 바탕으로 이 분야와 타 학문 분야 간의 학술적 상호관계와 주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학연구』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대상으로 창간호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학술지에 실린 383편과 이 연구논문이 인용한 6,811편을 조사·분석하였다. 전체 인용 문헌 중 타 학문 분야 문헌 2,224편을 빈도 및 백분율에 대한 통계치를 사용하여 주제별, 인용시기별, 인용 연령별, 문헌 유형별로 분석하고, 항목별 비교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학 분야의 연구 영역을 크게 13개로 나누고, 그 세부 영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기록물, 기록매체(기록물 일반, 종이/전자기록물, 역사/기관/시대/지역 기록물, 마이크로/종이/뉴미디어), (2) 기록관리학 교육(기록관리학, 교육, 교과과정), (3) 인력 및 윤리(인력, 윤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4) 기록물관리(기록물 간리, 아카이브즈, 기록보존, 기록물 라이프사이클), (5) 모형 및 체계(OAIS 참조모형, 기록관리모형, 기록물관리체계), (6) 법/정책/제도(기록물관리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인력양성제도, 기록관리정책, 평가제도), (7) 기관(협회, 기록보존소, 기록관), (8) 시스템/장비/기술(장치, 장비, 용품, 기술, 시스템), (9) 표준 및 기준(기록관리 분야 표준, 전자문서 표준화, 메타데이터 표준, 기록물 관리 규정, 기준, 보존, 관리), (10) 조직화(분류, 목록, 기술, 메타데이터), (11) 평가(평가지표, 평가론), (12) 기록

정보서비스(열람, 공개, 기록정보서비스,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13) 기타로 구분하였다.

McKemish와 Gilliland(2013)는 문헌 조사 연구에서 기록학의 연구중심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기록관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것이었지만, 1990년 중반 이후부터는 모범 실무, 관리, 기술(Technology) 활용으로 그 중심이 바뀌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기록관련 연구자, 교육자, 박사과정 학생의 포럼인 AERI(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의 연구 활동과 이 포럼에서 제안한 36개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나열하였다. 나아가 이들 저자는 장차 AERI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공동체, 평화와 보안, 사회 정의, 사회적 소속감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도전'을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이랑(2015)의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와 함께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발간된 학술논문 479편을 대상으로 KrKwic, Ucinet, NetDraw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내용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 국내 기록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전자기록'이었고, 이 분야의 범용적인 키워드인 '기록관리'와 '아키비스트'를 제외하면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키워드와 저자의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Onyancha와 Ngoepe 그리고 Mpho(2015)의 연구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에서 지난 1910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한 기록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LISTA(Library,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s)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수집한 논문을 UCINE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LISTA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한 상위 20개 키워드로는 '기록관(Archives)', '기록 관리(Records Management)', '전자 기록(Electronic Records)', '정보자원 관리(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정보학(Information Science)',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기록 자원(Archival Resources)', '국립 기록관(National Archives)', '기록물의 보전과 복원(Archival Materials -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공공 기록(Public Records)', '도서관학(Library Science)',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s)', '아키비스트(Archivists)', '관리(Management)', '대학교와 대학(Universities and Colleges)', '대학 도서관(Academic Libraries)', '정보 열람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기록관 - 장서관리(Archives - Collection Management)', '정부 정보(Government Information)'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손혜인과 남영준(2016)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68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제성과 주제 변화 추이에 대하여 빈도 분석과 NetMiner4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주제 분류는 법령 분석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기록물관리기관', '생산', '전자기록물', '관리', '보존', '비밀기록물', '공개·열람·활용', '표준', '기록 일반', '전문화', '민간기록물', '역사', 그리고 '기타'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논문 저자의 소속기

관과 주제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수현과 이명규(2016)는 기록관리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기존의 문헌 분류표에서는 분류항목 배열이 기록관리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분류항목의 전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록관리학의 학문 특성에 따라 주제영역을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법과 정책', '기록물의 수집·선별·평가', '기록물의 조직',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관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기관' 등 8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현대 주요 문헌 분류표인 KDC, DDC, NDC, UDC, LCC의 분류체계를 분석한 후, 『대한민국 국가서지』의 기록관리학 분야 유별 자료 현황 및 주제어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KDC 기록관리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소연(2017)은 국내 기록학 분야의 양대 학술지인 『기록학연구』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481편의 논문을 검토하여 80편의 실증연구를 선별한 뒤 Guba와 Lincoln이 정의한 실증주의(Positivism)와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 비판이론(Critical theory), 구성주의(Constructivism) 4가지 연구패러다임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성환과 오효정(2018)은 8종의 온라인 공개 국제 학술지와 6종의 국내 학술지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를 통하여 국가별 기록관리학 연구논문 게재 지수를 지리적으로 시각화하고, 또한 5년 단위의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국제적 동향과 국내외 기록관리학의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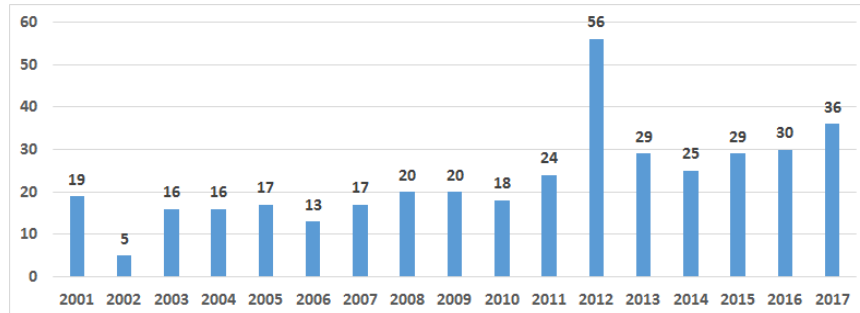
분석은 공개 소프트웨어인 Text Fixer를 이용하였는데, 이때 제목에서 나타난 키워드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 호주의 'Continuum', 'Perspective', 2005년 캐나다의 'Macro appraisal', 브라질의 'Classification', 2010년 한국의 'Multi-level' 키워드 등에서 서로 다른 맥락과 주제에서 높은 빈도수로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Analysis)', '환경(Environment)', '구조(Structure)', '시스템(System)' 순서로 대주제의 흐름을 보였지만, 국가별로 주제의 등장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록학 연구의 주제 영역을 잘 유지하고 보다 다양하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Ivanov(2017)가 제안한 것처럼 실무이론(Practice theory) 등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McKemmish와 Gilliland(2013)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 사회, 조직, 공동체의 요구를 항상 고심해야 할 것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국기록관리학회(<https://ras.jams.or.kr/>)를 통해 학회지의 창간호(2001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390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총 390편 중 키워드가 없는 20편을 제외한 370편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학회지의 연도별 게재 논문 편수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논문 편수

3.2 연구 절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논문에서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수집한다. 단, 키워드가 기재되지 않은 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390편 중 370편의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둘째, 수집된 저자 부여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정제작업을 통해 표준화한다.

- 1) 학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기록물관리’, ‘기록관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영문 축약어와 전체 단어의 경우, 전체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RMS’와 ‘기록관리시스템’의 경우, ‘기록관리시스템’을 채택한다.
- 3) 동일 수준으로 나열되어 표기된 경우, 대표어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박물관·도서관·기록관’은 ‘라키비움’으로 변경한다.
- 4) 특정지명이나 국가명 등의 고유명사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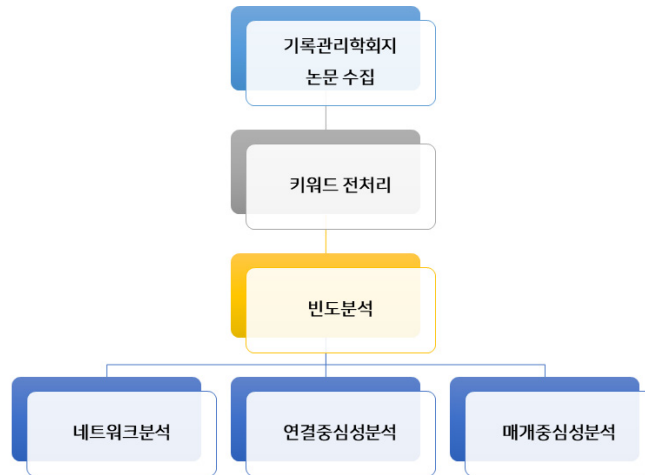
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서울’, ‘미국’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 5)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둔 기록물과 이에 대한 외국어 표기한 경우는 ‘지역기록물’로 통일한다. 예를 들면, ‘부산 기록물’, ‘군산 기록’, ‘로컬리티 아카이브’는 ‘지역기록물’로 변경한다.
- 6) 시소러스 사전을 통해 용어를 일치한다. 예를 들면, ‘전자기록물’, ‘전자 기록물’, ‘디지털아카이브’는 ‘전자기록물’로 통일한다.
- 7) 업무(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업무(서비스)유형과 대상을 분리한다. 예를 들면,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이용자서비스’와 ‘기록정보서비스’로 분리한다.

셋째, 관련 키워드 간의 관계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NetMiner V.4³⁾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 분석(Betweenness Centrality)을 추출한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3) NetMiner는 2001년에 소개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연결망 분석 모듈과 시각화 모듈이 하나의 패키지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어 분석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네트워크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포괄적인 네트워크 분석과 방법론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연구절차

4. 연구 결과

4.1 빈도 분석

수집된 390편 중 키워드가 기재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여 370편의 대상 논문으로부터 총 875개의 저자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이 중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92개로 <표 1>과 같다.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록정보서비스’가 22회로 빈도수가 가장 높았고, ‘전자기록물’ 21회, ‘역사기록물’ 20회, ‘아키비스트’ 18회, ‘국가기록원’ 15회 등 기록물관련 키워드가 높게 나타났으며 ‘메타데이터’ 14회, ‘분류체계’ 13회, ‘정보공개’ 12회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자기록물’, ‘기록물 일반 분야’가 본 학회지의 지속적인 연구 분야임을 제시한 선행연구와 유사하다(손혜인, 남영준, 2016). 이와 동시에 시계열로 변화추이를 살펴본 김성환, 오효정(2018)은 2005년에 전자기록 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시스템 적용에 따른 표준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는 점과 2015년에는 정부의 서비스 제공 변화와 보존과정검토 그리고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 상의 진본성, 신뢰성, 보안성에 관한 언급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결과에 기인할 수 있다.

4.2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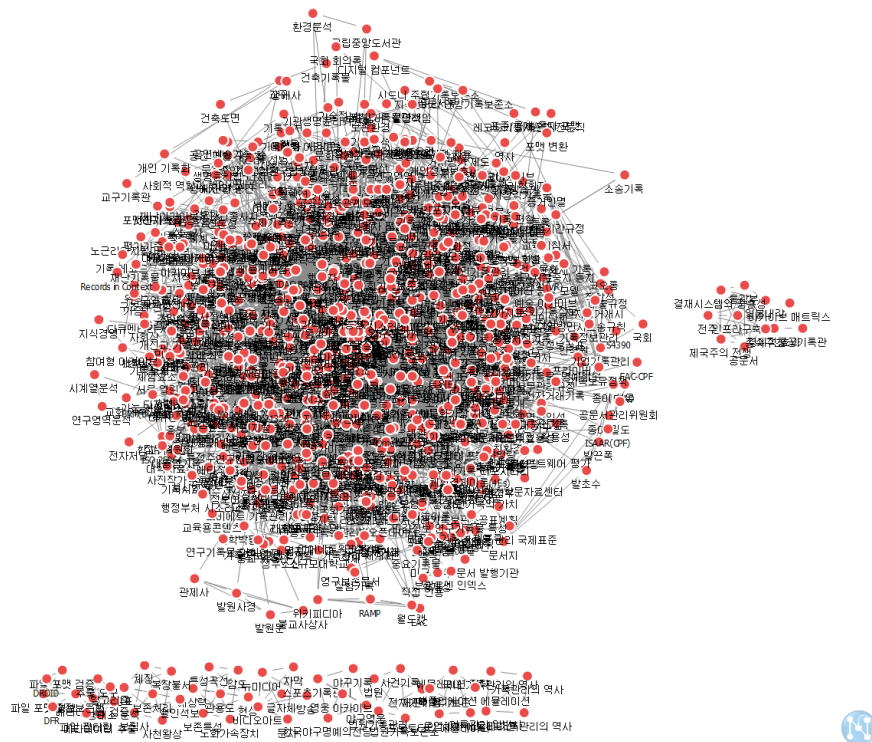
네트워크(Network)는 그물처럼 서로 연결시킨다는 뜻이며, 행위자를 나타내는 노드와 그들의 관계를 링크로 나타낸 것을 소셜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라고 한다. 이는 관계 데이터로서 개체 간의 연결구조와 특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별적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통계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곽기영, 2017). 이 중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는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빈도로 표현되는 네트워크로 동시에 언급된 빈도가 높을수록 밀접한 관계로 해석하며 이와 같은 관계가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표 1〉 3회 이상 출현한 전체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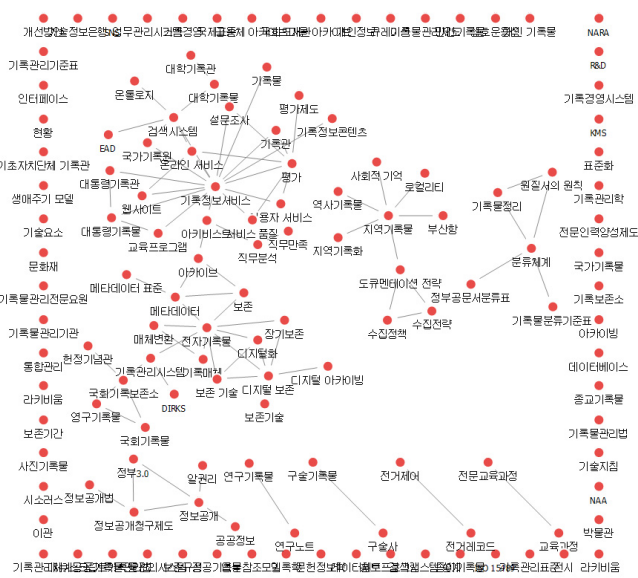
순위	키워드	횟수	순위	키워드	횟수	순위	키워드	횟수
1	기록정보서비스	22	32	KMS	6	63	공동체 아카이브	3
2	전자기록물	21	33	수집정책	5	64	국제표준	3
3	역사기록물	20	34	구술기록물	5	65	원질서의 원칙	3
4	아키비스트	18	35	지역기록화	5	66	국회기록보존소	3
5	국가기록원	15	36	통합관리	5	67	영구기록물	3
6	메타데이터	14	37	대통령기록관	5	68	기록보존소	3
7	분류체계	13	38	정부3.0	5	69	로컬리티	3
8	정보공개	12	39	보존 기술	5	70	기록정보콘텐츠	3
9	아카이브	12	40	디지털화	5	71	인터페이스	3
10	기록관리시스템	11	41	ISO 15489	5	72	기술요소	3
11	검색시스템	10	42	기록물	5	73	기록물관리전문요원	3
12	지역기록물	9	43	NARA	4	74	기록물관리기관	3
13	교육프로그램	9	44	상호운용성	4	75	설문조사	3
14	평가	9	45	정보공개청구제도	4	76	웹사이트	3
15	기록관	9	46	서비스 품질	4	77	전자제어	3
16	직무분석	9	47	도큐멘테이션 전략	4	78	시소러스	3
17	연구동향	8	48	공공기록물관리법	4	79	매뉴스크립트	3
18	연구방법론	8	49	기록물정리	4	80	알권리	3
19	장기보존	8	50	직무만족	4	81	전문인력양성제도	3
20	디지털 보존	8	51	디지털 아카이빙	4	82	기록물관리법	3
21	보존	8	52	공공기록물	4	83	업무참조모델	3
22	사회적 기억	7	53	보존규정	4	84	대학기록관	3
23	온라인 서비스	7	54	보존기술	4	85	검색시스템 설계	3
24	이용자 서비스	7	55	홍보프로그램	4	86	라키비움	3
25	온톨로지	6	56	기록관리표준	4	87	NAA	3
26	이관	6	57	데이터베이스	4	88	기술지침	3
27	메타데이터 표준	6	58	전문교육과정	4	89	기록매체	3
28	전시	6	59	대통령기록물	4	90	매체변환	3
29	DIRKS	6	60	개인정보	3	91	종교기록물	3
30	대학기록물	6	61	정보공개법	3	92	정부공문서분류표	3
31	아카이빙	6	62	수집전략	3			

〈그림 3〉은 전체 키워드의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으로 875개의 노드와 1,836개의 링크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매우 복잡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출현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제한한 92개의 키워드를 〈그림 4〉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기록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지역기록물’과 키워드 간의 연결구조, 그리고 ‘분류체계’의 연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4〉 3회 이상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표 2〉는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간의 최단 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연결거리 값이 4~9일 때, 작은 세상 네트워크(Small World Network)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평균값이 작을수록 작은 세상에 가깝다 할 수 있으며, 높은 군집화 계수

와 짧은 경로거리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이수상, 2012).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평균 거리는 4.21이며 최대 5 키워드만 건너면 모든 주제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3〉은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빈도 중 상위

〈표 2〉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간의 최단거리

MEASURES	VALUE		
	GEODESIC DISTANCE	# OF REACHABLE NODES (OUT)	# OF REACHABLE NODES (IN)
MEAN (평균경로)	4.21	13,925	13,925
STD.DEV. (표준편차)	2.251	18,522	18,522
MIN. (최소경로)	1	0	0
MAX. (최대경로)	10	41	41

〈표 3〉 노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상위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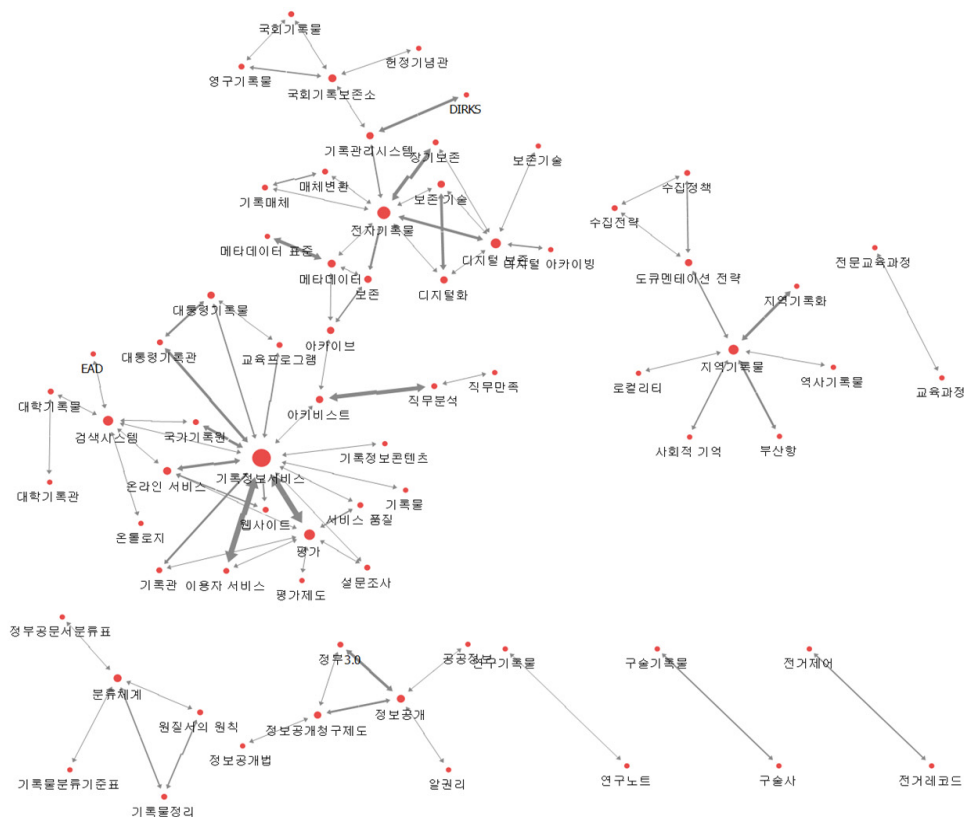
순위	Source	Target	Weight
1	기록정보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9
2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9
3	아키비스트	직무분석	8
4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7
5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	7
6	기록관리시스템	DIRKS	6
7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6
8	디지털화	보존기술	6
9	기록정보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6
10	정보공개	정부3.0	6
11	지역기록물	지역기록화	6
12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서비스	6
13	전자기록물	디지털 보존	6
14	기록정보서비스	기록관	5
15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제도	5
16	지역기록물	부산항	5
17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5
18	전자기록물	보존	5
19	매체변환	기록매체	4
20	기록물정리	원질서의 원칙	4

20개를 제시한 것으로, ‘기록정보서비스’와 ‘이용자 서비스’ 혹은 ‘기록정보서비스’와 ‘평가’ 간의 높은 연결성을 보였다. 이는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보존’에서 ‘접근’으로 서비스 유형 변화에 따른 기록물 관리체계 방식과 이용자 서비스 제공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1 연결 중심성

중심성은 한 노드의 집중도를 말하며,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키워드 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방법인데 연결성이 높을수록 노드 간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설명할 수 있

다(곽기영, 2017).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높을수록 노드 크기는 크며 노드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링크는 가중치(Weight) 값이 클수록 굵게 표현된다. 이는 키워드 쌍이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5>는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을 나타낸 것으로, 비교적 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는 ‘이용자서비스’와 상대적으로 출현빈도는 적은 ‘평가’와 높은 연결성을 나타내었다. 최재희(2011) 연구에서 언급되었듯 평가를 주제로 다루는 논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핵심



<그림 5> 3회 이상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연구분야로 꾸준히 언급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다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Cook, 2001; 김규환, 남영준, 2009; 최재희, 2011; 이소연, 2013; 손혜인, 남영준).

추가적으로 '전자기록물'의 '디지털보존', 혹은 '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결성을 확인하였다. 기록물 생성방법과 그 매체의 변화로 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해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주제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기록물'의 기록화에 대한 전략과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록물정리를 위한 '분류체계'가 주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연결중심 값을 나타낸 것으로 '기록정보서비스'가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였으며, '전자기록물', '평가', '지역기록물', '검색시스템', '디지털 보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편의와 이용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기록정보서비스는 대부분 법·제도·정책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개와 저작권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인 지식을 다루는 연구의 높은 비중을 예상할 수 있다(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2013). 한편, 앞서 살펴본 〈표 1〉의 전체 키워드의 빈도분석과 비교하면, '디지털화', '보존기술'이 빈도는 낮았으나 연결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제3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주제 또한 '보존관리', 'OAIS 참조모형 개발', '디지털보존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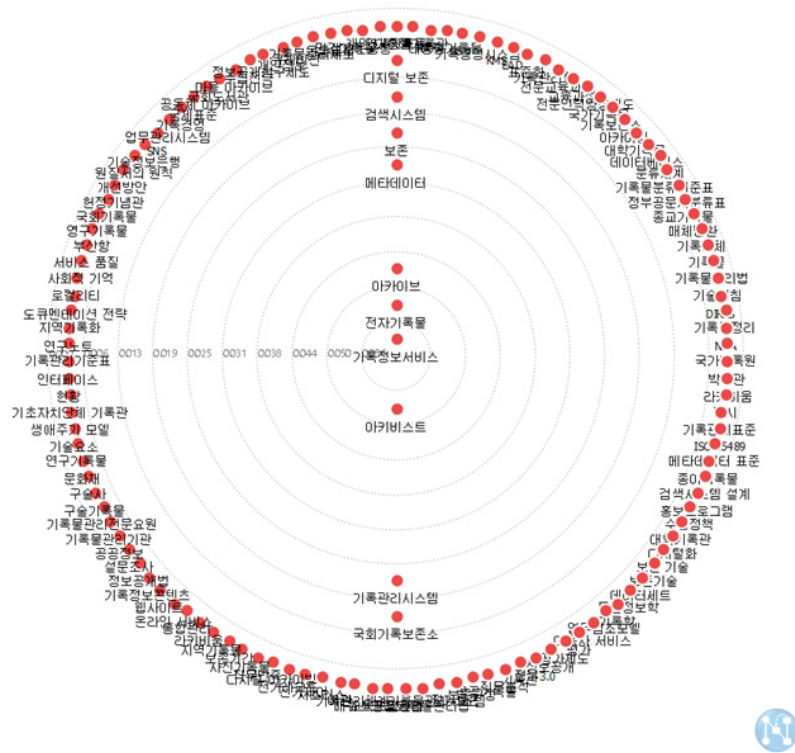
상당수 포함되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4〉 연결중심 값(상위 15개)

순위	키워드	Degree Centrality
1	기록정보서비스	0.113636
2	전자기록물	0.068182
3	평가	0.05303
4	지역기록물	0.045455
5	검색시스템	0.045455
6	디지털 보존	0.045455
7	국회기록보존소	0.030303
8	온라인 서비스	0.030303
9	정보공개	0.030303
10	분류체계	0.030303
11	메타데이터	0.030303
12	정보공개청구제도	0.022727
13	도큐멘테이션 전략	0.022727
14	보존 기술	0.022727
15	디지털화	0.022727

4.2.2 매개 중심성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하위 주제들을 매개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주제로 확장이 가능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다(이수상, 2012). 즉,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림 6〉은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활용한 분석결과이다. '기록정보서비스', '아키비스트', '전자기록물',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순으로 키워드 간의 높은 매개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이용자 서비스에 관한 '기



〈그림 6〉 3회 이상 출현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록정보서비스'는 다른 키워드 간의 연계되는 폭이 넓으며, '평가', '유형별 기록물', '검색시스템' 등이 주로 회자됨을 의미한다.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2006)의 연구에서 이용자의 용이한 정보접근을 위해서는 정확한 메타데이터 기술과 성능이 좋은 검색도구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표 5〉는 매개중심 값을 나타낸 것으로, 〈표 1〉의 전체 네트워크의 빈도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디지털 보존'이 상대적으로 출현빈도는 낮았으나 키워드 간의 중개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소연(2013)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부터 국내 연구자들 간에 디지털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문헌정보학, 기

〈표 5〉 키워드 매개중심 값(상위 15개)

순위	키워드	Betweenness Centrality
1	기록정보서비스	0.062514
2	아키비스트	0.052972
3	전자기록물	0.050775
4	아카이브	0.047883
5	메타데이터	0.025445
6	기록관리시스템	0.021282
7	보존	0.020819
8	검색시스템	0.017754
9	국회기록보존소	0.013417
10	디지털 보존	0.009253
11	평가	0.005205
12	직무분석	0.004626
13	대학기록물	0.004626
14	지역기록물	0.002892
15	도큐멘테이션 전략	0.001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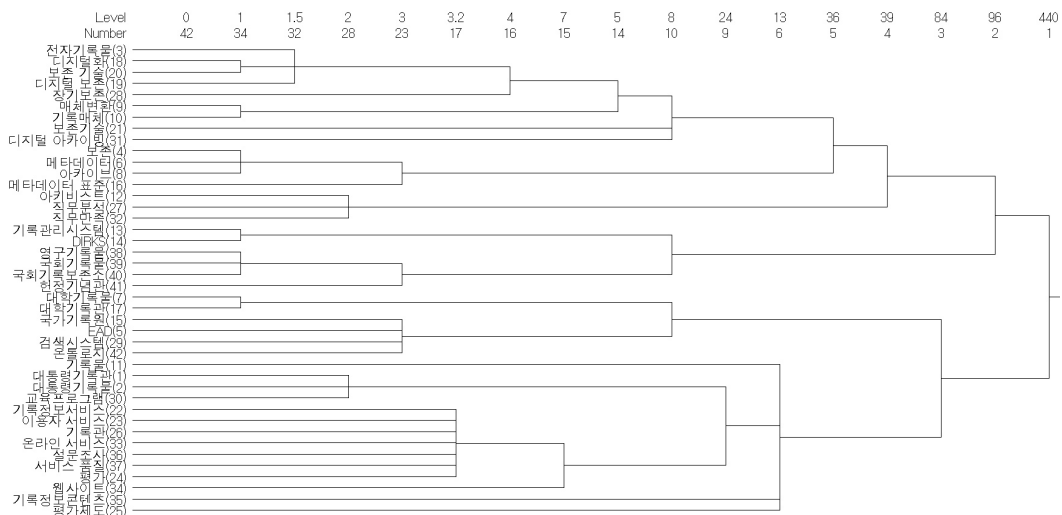
록관리학, 컴퓨터 관련 분야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디지털 보존에 관한 연구가 다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디지털 객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디지털 보존 연구에 관한 동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김희정(2011)은 기록학에서 이루어진 웹 아카이빙 연구는 디지털 보존과 웹 수집을 다룬 프로젝트였다는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은 키워드 네트워크의 컴포넌트 덴드로그램이다. 클러스터 분석의 하나로 노드 간에 형성된 연결 관계의 패턴을 토대로 유사도를 계산하여 반복적으로 군집화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집중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응집도(Cohesion) 또는 결속력이라 하며, 노드들이 얼마나 응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응집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이용하여 하위집단을 이루는데 이를 컴포넌트(Component)라 한다. 컴포넌트는 네트워크의 여러 군집 중 하나를 네트워크 내에서 최대로 연결된 하위 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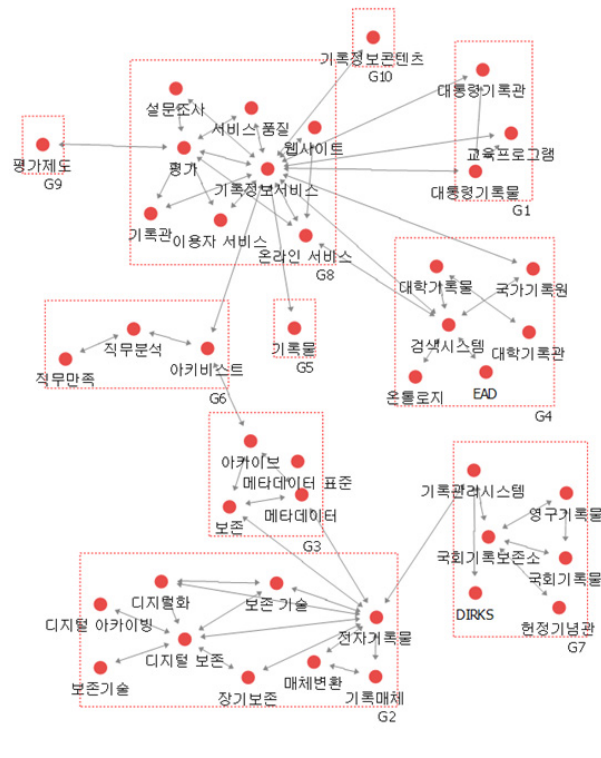
워크를 말하며(이수상, 2012),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의 컴포넌트를 이루었다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그림 3〉에서 나타나는 전체 키워드의 네트워크 구조는 둘 이상의 컴포넌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 거대한 구조의 컴포넌트로 한정하여 〈그림 7〉과 같이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기록정보서비스', '이용자서비스', '기록관', '온라인서비스', '설문조사', '서비스품질', '평가' 등의 키워드가 주요 쌍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기록학 분야 중 이용자 서비스 측면의 연구가 상호 연계된 주제로 연구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화'와 '보존기술'이 쌍을 이루며 '전자기록물'과 '디지털보존' 쌍과 유사한 맥락의 주제 연관성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은 덴드로그램에서 나타내는 키워드 간의 응집력을 네트워크로 나타낸 것으로 유사도에 따라 총 10개의 그룹으로 키워드의 군집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



〈그림 7〉 컴포넌트 덴드로그램



〈그림 8〉 응집성 분석

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연구범위와 유사하였으
며(Cook, 2001; Couture & Ducharme, 2005;
김희정, 2005; Kim & Lee, 2008; 장로사, 김유
승, 2009; 남태우, 이진영, 2009; 이소연, 2013;
최이랑, 2015; Onyancha, Ngoepe, & Mpho,
2015; 손혜인, 남영준, 2016; 박수현, 이명규,
2016), 특히 Kim, Lee(2008)이 제시한 (1) 디
지탈 도서관과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G2, (2)
온라인 자원과 검색 도구:G4, (3) 기록관과 아
카이비스트:G5, (4) 법률과 정치적 이슈, (5) 전
자 기록과 기술적 이슈:G3, (6) 기록과 정보
관리:G7, (7) 전자메일과 정보전문직:G6 등의
7가지 범주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록학 분야의 대표적
인 학술지 중의 하나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
로 연구 대상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의 핵심 영역은 무엇이며, 어느 연구 주제
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연구 분야로
확장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창간호부터 최근(2001년-2017년)까지 게재된
총 390편의 논문 중 저자가 부여한 875개의 키
워드를 수집하였다. 이들 중에서 명확한 네트워
크 구조를 표현하고자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총 92개의 키워드를 NetMinter V.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다소 개입되어 키워드 추출에서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핵심적인 주제 영역은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물', '역사기록물', '아키비스트', '국가기록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영향력이 높은 주제 영역은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물', '평가', '지역기록물', '검색시스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키워드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로 주로 언급되었다는 의미이다.

셋째,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확장성이 높은 주제 영역은 '기록정보서비스', '아키비스트', '전자기록물',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순

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들 키워드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보다 세부적인 연구 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매개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심이 되는 연구 주제는 '기록정보서비스'로 기록물의 특성상 정보공개, 저작권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향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 개선', '디지털화', '유형별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등 포괄적으로 연구가 진행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일 학술지에 한정하여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학술지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학술지가 지금까지 기록학 연구자들의 지식 공유의 장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록학 학문발전에는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곽기영 (2017). 소셜네트워크분석. 서울: 청람.
- 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2013).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9.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 김성환, 오효정 (2018). 온라인 공개 국제학술지 기반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65-189.

- 김판준, 서혜란 (2012).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전자기록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29-50.
-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김희정 (2011).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웹 아카이빙 주제영역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35-248.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 노현아, 장우권 (2013). 타 학문 분야 간의 문헌 인용 행태 분석: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363-383.
- 박수현, 이명규 (2016). 한국십진분류법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3), 25-50.
-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65-92.
- 손혜인, 남영준 (2016). 기록관리학 분야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1), 85-110.
- 이소연 (2013).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47-283.
- 이소연 (2017). 국내 기록학 연구방법 동향분석(1): 설문과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1, 307-336.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97-100.
- 정우성, 양현채 (2013). 과학계량학 연구동향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 응용가능성.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최이랑 (2015).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최근 10년간(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3, 147-177.
- 최재희 (2011). 국내외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7-22.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 Cook, Terry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es & Museum Informatics, 1(1), 3-24.
- Couture, Carol & Ducharme, Daniel (2005).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A Status Report. Archivaria, 59(1), 41-67.
- Couture, Carol (2001). Education and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General Tendencies. Archives & Museum Informatics, 1(2), 157-182.

- Ivanov, A. O. (2017). Practice Theory: a New Approach for Archival and Recordkeeping Research. *Records Management Journal*, 27(2), 104-124.
- Kim, H. & Lee, J. Y. (2008). Exploring the Emerging Intellectual Structure of Archival Studies using Text Mining: 2001-2004.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4(3), 356-369.
- McKemmish, S. & Gilliland, A. (2013). Archival and Recordkeeping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In Williamson, K. and Johanson, G. (Eds.). *Research methods: Information, Systems, and Contexts* (pp. 79-112). Victoria: Tilde University Press.
- Onyancha, O. B., Ngoepe, M., & Maluleka, J. (2015). Trends, Patterns, Challenges and Types of Archival Research in Sub-Saharan Africa. *African Journal of Library,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25(2), 145-159.
- Pearce-Moses, Richard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Ro-Sa & Kim, You-Seung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97-100.
- Choi, Jae Hee (2011).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 11(1), 7-22.
- Choi, Yilang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Studies in Korea: Focused on Research Papers between 2004 and 201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3, 147-177.
- Jung, WooSung & Yang, Hyun-Jae (2013). *Research Trend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Korean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Kim, Geon, Kim, Soojung, Youn, Eunha, & Han, Hee-Jung (2013). Research Trend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 13(3), 199-229.
- Kim, Gyu-Hwan & Nam, You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 Kim, Hee-Jung (2011). A Study on Web Archiving Subject Analysis Based on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2), 235-248.
- Kim, Pan Jun & Suh, Hye-Ran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of Electronic Records Research in Korea Using Profi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 12(2), 29-50.
- Kim, Sung-Hwan & Oh, Hyo-Jung (2018).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Trends Analysi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based on Online Public International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165-189.
-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10).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the Science of Evidence & Memory*. Seoul: AsiaMoonHwaSa.
- Kwak, Ki-Young (2017). *Social Network Analysis*. Seoul: ChungRam.
- Lee, Soo-Sang (2012). *Network Analysis Methods*. Seoul: NonHyung.
- Lee, So-Yeon (2013). Trends Analysis of Digital Preservation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 13(2), 247-283.
- Lee, So-Yeon (2017). Methodological Research Trend Analysis of Records and Archives in Korea (1): Focused on Surveys and Experiment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1, 307-336.
-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451-472.
- No, Hyeon-A & Chang, Woo-Kwon (2013). An Analysis of the Bibliographic Citation Behaviors of Other Academic Areas: Case Study in Academic Journals of Korea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363-383.
- Park, Su-Hyun & Lee, Myoung-Gyu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in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3), 25-50.
- Seo, Eun-Gyoung, Joung, Kyoung-Hee & Choi, Sanghee (2006). Strategies for Improving User-Oriented Information Services at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 6(1), 65-92.

Sohn, Hey In & Nam, Young Joon (2016).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85-110.